

* 노은 초

목차	Abstract
	I. 서론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2. 측정항목 및 방법
	3. 연구절차
	4. 자료분석
	III. 결과 및 논의
	1. 무용창의성의 양적평가
	2. 무용창의성의 질적연구
	IV.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 숙명여자대학교 강사

논문투고일 : 2015.07.30.

논문심사일 : 2015.08.17.

게재확정일 : 2015.09.01.

Effect of dance-related writing exercise on performers' dance creativity

Noh, Eun-cho
Sookmyung Women's
University

In this research, we used statistical methods and triangulation used to analyze the effect of dance-related writing exercise on performers' dance creativity.

Professional dance majors of S university were divided into experimental group (n=11) and control group (n=8). Participants underwent weekly ballet program for 15 weeks and were evaluated both pre and post program using the dance creativity test. Statistical evaluation was done using Wilcoxon signed-rank test with significance level of $\alpha=.05$.

The result showed that the creativity test-factors such dance intellectuality, esthetic sensibility, and dance working composition ability increased in both groups, yet the magnitude of creativity improvement was larger in the experimental group. Furthermore, triangulation method was applied to obtain data from the experimental group. Conclusions are shown below.

First, dance related writing exercise provides time for reflection and contemplation, thus, resulting in the expansion of self-exploration process and overall creative dance working composition. Second, it also serves as a bridge to support the repeated modification process in creative endeavor with heightened spontaneity. Therefore, dance-related writing exercise should be revisited as means to develop performers' dance creativity.

<key words> dance-related writing, learning ballet, dance creativity, performing arts education.

주요어) 무용학적 글쓰기, 발레수업, 무용창의성, 무용교육.

1950년 Guilford의 창의성 개념에 대한 발표 이후, 창의성은 수십 년간 심리학 분야의 주요 주제가 되어 왔다.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마주치게 되는 수많은 문제의 해결방법의 하나로 창의성이 주목받게 되면서 이는 학계를 넘어 정치, 경제, 문화 등 여러 분야의 화두로 대두되었다. 그 중에서도 예술은 특히 인간의 미적인 정서를 외부로 표현하는 성격상 독특하고 특이하고 참신해야 하는 숙명을 지니고 있으며(김재은, 2007:19), 이러한 정서를 움직임으로 표출하는 무용 역시 주관적이고 감성적인 내재된 이미지를 신체를 통하여 창조적인 생산물의 형태를 외부로 나타낸다는 점에서 창의성이 핵심적 요소가 된다고 볼 수 있다. 좋은 무용작품은 창의적인 안무와 우수한 무용수가 있어야 가능할 것인데(안문경, 김경은, 2007:1), 지금까지의 무용교육은 신체나 기능교육에 치우쳐 기술향상이 최우선 목표가 되어 창의력, 상상력에 대한 관심과 훈련이 부족하다는 것이 큰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김재은, 서예원, 2011:15). 실제로 현행 무용교육 프로그램은 대체로 최종목표를 전인교육에 두고 있으나 현장에서 시행되는 방법은 주입식 따라하기의 실기중심으로 되어 있어 학생의 사고는 점차 단순화되어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는 창의적 사고와는 거리가 멀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김기화, 2011:30).

움직임은 인간의 기본활동임과 동시에 무용에 있어서 표현의 재료가 되며, 이는 어떻게 춤추느냐 하는 움직임의 기본개념과 무엇을 춤추느냐 하는 문제를 제시하는 두 가지 명제를 지니게 된다(오레지나, 2006:20). 이에 비추어 볼 때 현재까지의 무용교육이 ‘어떻게 춤추느냐’는 기술적인 면에 비중을 두어 왔다면, 이에 대한 반성으로 ‘무엇을 춤추느냐’, 즉 자신을 발견하고 이를 외부로 표출하면서 타인, 사물, 환경과의 대화를 시도하는 예술의 본질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여건에 대한 필요성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에 인간정신의 총체적 탐색작업이며 인간 삶을 풍요롭게 해 준다는 점에서 무용과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인문학이 해법의 하나로 제시되었으며, 시와 소설, 영화와 음악 등 여러 인문학적 접근법을 이용한 교육방법이 시도되어 왔다(김재은, 서예원, 2011:2). 이러한 인문학적 접근법의 하나로 글쓰기를 들 수 있는데, 존 듀이(Dewey, J., 1859-1952)는 비언어적 감상활동을 설명적 언어로 수행하는 훈련을 하고 습관화하면서 ‘더욱 적절하게 지각하게 만드는 능력을 키울 수 있다’ 고 하였으며(이원숙, 2013:187), 강성숙은 예체능 계열학생을 위한 글쓰기 교육의

연구(강성숙, 2014:337)에서 전공 계열의 특성에 맞는 주제별 글쓰기 교육 제공이 학생들의 전공 영역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는 데 기여하는 토대가 되어 계열별 글쓰기 교육이 제대로만 이루어진다면 개인의 생각을 정립하고 주제 의식과 주체 의식을 갖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글쓰기 수업은 학습자의 창의성을 길러주기 위한 매우 효과적인 교육과정의 역할을 수행하기에(최상민, 2015:237) 대부분의 대학에서 교양과목으로 운영되고 있다(김현정, 2012:82).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본 연구에서는 무용교육에서 창의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무용학적 글쓰기를 시도하였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인문학적 글쓰기가 자신의 삶에서 문제 의식을 발견하고 삶의 주변을 성찰적으로 탐문해 하나의 문제에 관한 풍부한 생각과 다양한 답변을 요구하며 상상력을 가지고 체계적인 사고를 효율적으로 전달하도록 새로운 생각을 글로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면(김주연, 2014:122),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인문학적 글쓰기를 바탕으로 하여 학습자들의 성찰, 반성, 회상, 복습의 과정을 기록화하고 그들이 느끼는 무용의 정서와 움직임의 에너지, 춤 동작에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내재적 차원의 전반적인 현상까지 글로 담아내는 작업을 무용학적 글쓰기로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무용수업 수강자를 무용학적 글쓰기를 시도한 실험군과 그렇지 않은 대조군으로 나누어 각 군의 창의성 향상 정도를 객관화된 창의성 척도로 계량 후 통계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수치상으로 나타난 효과 외에 무용학적 글쓰기가 향후 수업방법으로 지속적, 효과적으로 운영 가능하지 알아보고자 실험군을 연구참여자로 선정, 주관적인 내면을 탐구하는 질적 연구를 병행하였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S대학교 무용학과에서 발레 전공자를 제외한 한국무용, 현대무용 전공자 중 부전공으로 발레수업을 수강하는 25명 가운데 연구의 목적을 충분히 이해한 자로 중도 탈락하거나 포기한 학생 6명을 제외한 19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무용학적 글쓰기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11명을 실험군, 그렇지 않은

8명을 대조군으로 나누어 2015년 3월부터 6월까지 진행하였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사전검사를 수업 4주차에 실시하여 두 군이 동일한 성격의 집단임을 확인하였고, 사후검사를 15주차에 실시하여 각 군의 향상도를 평가하였다. 실험군에게는 주 1회, 발레수업 직후 20분 내외로 무용학적 글쓰기를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대조군에게는 수업시간 외 실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활동에는 참여하지 않도록 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인원수(명)	평균연령(세)±표준편차	발레경력(년)±표준편차
실험군	11	20±0.63	4.64±1.95
대조군	8	20.38±0.52	4.52±1.64

2. 측정항목 및 방법

1) 무용창의성의 양적연구

무용학적 글쓰기를 실시한 무용전공자들의 무용창의성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하기 위하여 오레지나(2012)가 개발한 무용창의성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경쟁력을 갖춘 창의적인 무용전문가 양성과 무용창의성 신장을 위한 학습 수준을 어떻게 진단할 것인가의 문제 해결을 위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오레지나, 2012:157) 본 연구의 도구로 적합할 것으로 생각되었으며, 척도문항은 무용사고력 3문항과 미적표현 7문항,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기 위하여 본 연구자를 제외한 무용경력 20년 이상의 전임강사 1인, 강사 1인, 자문위원 1인을 평가위원으로 구성하여 독립적으로 평가하였다. 무용창의성 척도의 내용은 다음의 <표 2>와 같다.

표 2. 무용창의성 척도 검사

평가변인	평가요소	평가척도	
무용 사고력	상상력	상상력이 없다 ①②③④⑤ 상상력이 풍부하다	
	주관	주관이 없다 ①②③④⑤ 주관이 명확하다	
	논리력	사고가 논리적이지 않다 ①②③④⑤ 사고가 논리적이다	
미적 표현	심미적 감각	미적감각	미적감각이 없다 ①②③④⑤ 미적감각이 있다
		감정	감정이 없다 ①②③④⑤ 감정이 풍부하다
		몰입	몰입을 못한다 ①②③④⑤ 몰입을 잘한다
		표현	표현이 자연스럽지 않다 ①②③④⑤ 표현이 자연스럽다
	무용작품 구성능력	통일	통일감이 없다 ①②③④⑤ 통일감이 있다
		변화	변화가 없다 ①②③④⑤ 변화가 많다
		흐름	끊어진다 ①②③④⑤ 전체적인 흐름이 있다
총점		100점(각 문항 10점)	

(오레지나, 2012:166)

2) 무용창의성의 질적연구

본 연구에서는 연구참여자들의 감정과 정서적인 내적 현상을 심도 있게 고려하기 위하여 질적연구 방법을 병행하였으며,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측정과 분석 시 세 가지 이상의 도구를 사용하는 삼각측정기법(triangulation)을 활용하였다. 이를 위한 자료로 연구참여자들이 작성한 결과물과 심층면담, 비참여관찰메모, 비디오 녹화자료를 사용하였다. 심층면담(in-depth interview)은 연구의 중반과 후반으로 나누어 총 2회 실시하였으며 연구참여자들의 면담 내용을 녹취, 전사하여 연구의 자료로 삼았다. 연구참여자들이 발레수업에서 경험한 느낀 점을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형식으로 반구조화된 면담(semi-structured in-depth interview)과 비구조화된 면담(unstructured interview)을 혼합 사용함으로써 연구참여자들의 진술을 보다 깊이 있고 폭넓게 제공받도록 노력하였다. 또한 사전과 사후 평가의 창작물을 영상자료로 확보하여 연구자가 놓칠 수 있는 부분을 보완하였고 세밀한 분석과 밀도 높은 논의를 도모하고자 관찰된 변화를 수시로 메모하였다.

3. 연구절차

1) 발레수업 프로그램

본 연구를 위하여 진행된 발레수업 프로그램은 매 수업 시간마다 중점을 두는 주제와 관련된 다양한 동작을 습득하며, 이를 바탕으로 수업 4주차, 15주차에 2분 내외의 작품을 창작, 시연하도록 하였다. 발레수업은 오리엔테이션과 2회의 창작 평가를 포함한 총 15주차로 진행하였으며, 주 1회, 매주 목요일 오전 8시부터 11시까지 실시하였다. 연구의 일정 및 발레수업 프로그램은 다음의 <표 3>과 같다.

표 3. 발레수업 프로그램

차시	수업 주제	내용	연구절차
1		Orientation	연구대상
2	바른 자세와 틀린 자세 인지	Demi-plié(grand) in I, II, III, and IV position/battement tendu/jeté piqué/rond de jambe par terre/sur le cou de pied/ temp relevé par terre/en dehors/en dedans	
3	팔의 움직임 6가지 습득	Port de bras 6 position, battement retiré/passé/ pas de bourrée changé/pas de bourrée suivi circle/effacé/écarté/croisé/épaulement	
4	무용창작평가	Combination	사전검사
5		Changement de pieds/pas échappé in II, IV position/pas assemblé/sauté/tombé and coupé/pas glissade	
6	점프(Jump)의 착지 유형에 따른 동작 탐색	Temps levé with one leg sur le cou-de-pied/pas glissade/ pas double assemblé sauté/pas de chat traveling with throwing legs forward	
7		Pas de chat trveling with throwing legs backward/sissonne ouvert at 45°/sissonne fermé	
8		Sissonne ouvert at 45° in all small poses /sissonne fermé/ chaîné	심층면담
9	고정력 및 회전력 강화를 위한 턴(turn)동작 응용	Chaîné/pas glissade en tournant/pas emboîté piqué 1/2 turn	
10		Preparation V position pirouette	
11	신체의 협응력 향상을 도모하는 동작 학습	Pas de bourrée en tournant/pas de basque en tournant/saut de basque	
12		Pas de bourrée ballotté en tournant/pas ballonné/pas ballotté/pas de basque en tournant/pas emboîté piqué 1/2 turn/pas emboîté sauté	
13		Saut de basque/pas emboîté sauté/chaîné	
14	주요동작반복	Pas double assemblé/sauté(temps levé) sissonne simple/sissonne ouvert at 90°/changement de pieds en tournant/pas de basque en tournant	심층면담
15	무용창작평가 및 총평	Combination	사후검사

2) 무용학적 글쓰기

연구참여자들에게 매주 수업 직후 무용학적 글쓰기를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1차시 오리엔테이션 orientation 시간에 인문학적 글쓰기와 무용학적 글쓰기의 의미를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인문학적 글쓰기는 자신의 삶에서 문제의식을 발견하고 삶의 주변을 성찰적으로 탐문해 하나의 문제에 관한 풍부한 생각과 다양한 답변을 요구하며 상상력을 가지고 체계적인 사고를 효율적으로 전달하도록 새로운 생각을 글로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며(김주연, 2014:122), 무용학적 글쓰기는 인문학적 글쓰기 의미가 바탕이 되어 연구참여자들의 성찰,

반성, 회상, 복습의 과정을 기록화하고 그들이 느끼는 무용의 정서와 움직임의 에너지, 춤 동작에서 말하는 내재적 차원의 현상까지 구체적으로 글로 담아내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글쓰기는 구체적으로 수업시간에 진행된 내용과 함께 자신의 느낌을 문장으로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하되 특별한 형식은 배제하여 자유롭게 진행하도록 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의 글쓰기 수행에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글쓰기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표 4>에 제시된 주제를 참고하도록 하였고 단순한 수업내용의 기록이나 교수자에게 보여주기식의 글은 지양하도록 권고하였다. 글쓰기는 실험군을 대상으로 하여 총 15주의 수업 중 오리엔테이션과 2회의 평가, 내부 사정으로 수업만 실시한 2회를 제외한 총 10회, 수업 직후 20분 내외로 시행하였으며, 대조군은 수업시간 외 연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활동에는 참여하지 않도록 하였다.

표 4. 무용학적 글쓰기의 차시별 주제

차시	구분	소요시간(분)
1	오늘 습득한 발레 동작 중 어려운 점과 앞으로 나에게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20
2	오늘 배운 수업 내용에서 기억에 남는 동작은 무엇이고 그것이 왜 기억에 남는가? 기억에 남는 동작을 자신만의 움직임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는가?	20
3	수업에서 느낀 점과 좋았던 점은 무엇인가?	20
4	오늘 습득한 동작을 자신만의 움직임으로 구성한다면 몸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는가?	20
5	수업시간에 표현된 동작 구성을 본인이 추구하는 춤의 양식으로 재표현한다면 어떻게 응용할 수 있는가?	20
6	지금까지 진행된 발레 수업 내용 중 가장 인상 깊게 느낀 동작은 무엇이며 그 생각은 언제 어떻게 가지게 되었는가?	20
7	수업시간에 느낀 점은 무엇인가?	20
8	오늘 이해한 발레 동작에서 연상된 이미지와 그 이유를 설명하고 그것을 어떻게 나만의 스타일로 적용할 것인가?	20
9	수업시간에 좋았던 점과 어려웠던 점은 무엇인가?	20
10	수업 직후 작성한 글쓰기가 연구참여자들의 동작 표현과 창작 과정에 있어서 어떠한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하는가?	20

4. 자료분석

1) 양적분석

본 연구를 위한 자료는 SPSS/PC+Windows 20.0 통계 패키지를 이용하여 분석·처리하였다. 변인별 측정 자료로부터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두 집단의 동질성을 검증하고 각 집단의 측정 변인별 전·후 차이를 검증하며 집단 간 변화량 차이의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윌콕슨 부호순위검증(Wilcoxon's signed rank test)을 시행하였다. 정규분포를 따르는 다수의 표본의 경우 일반적으로 대응표본 t-test, 독립표본 t-test, 공분산분석을 사용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소규모 표본 분석에 적합한 비모수적 통계분석을 시행하여 연구의 신뢰성을 높이도록 하였으며, 유의수준은 $\alpha = .05$ 로 설정하였다.

2) 질적분석

본 연구에서는 질적분석의 첫 작업을 ‘코딩coding’에 두고 내면적 구조를 분석하기 위하여 자료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어휘, 주제, 장면 등을 조사하여 일정한 코드를 부여함으로써 자료를 체계화하였다(이혜민, 신현군, 김윤희, 2013:123). 무용학적 글쓰기, 심층면담, 비참여관찰 메모 및 녹화된 비디오 자료에서 나타난 공통적인 장면과 자주 발견되는 동일한 문맥에 밑줄을 그으며 정리하였고 연구참여자들의 내적인 변화까지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확보된 영상자료와 무용학적 글쓰기 결과물 내용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와 문장을 선별 후 본 연구 주제와 목적에 적합한 내용으로 범주화하였다. 다각적인 관점에서 관찰된 원자료 raw data 내용이 왜곡되지 않도록 연구참여자들이 생각한 글의 맥락을 확인하면서 연구의도에 맞도록 재구성하였다.

Ⅲ. 결과 및 논의

1. 무용창의성의 양적평가

1) 두 집단의 동질성 비교

실험군과 대조군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전검사를 시행하고 윌콕슨 부호순위검정을 사용하여 동질성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실험군과 대조군의 실험 전 무용창의성 척도 검사

	실험군			대조군			
	MD	Q1	Q3	MD	Q1	Q3	p
상상력	2	2	3	2.5	2	3	0.314
주관	2	2	3	2	2	3	0.5062
논리력	2	1	2	2	1	2.5	0.3431
미적감각	1	1	1	1	1	1.5	0.2697
감정	1	1	2	1	1	1.5	0.4948
몰입	1	1	2	1.5	1	2.5	0.3871
표현	1	1	2	2	1	2	0.2549
통일	1	1	2	1.5	1	2	0.2901
변화	1	1	2	1	1	1	0.2668
흐름	1	1	2	1.5	1	2	0.5667
무용사고력	6	5	8	7	5	8	0.2446
미적표현	8	8	13	10	8	13	0.3481
심미적감각	5	5	6	6	5	7	0.1245
무용작품구성능력	4	3	7	4	3	5	0.4003
전체점수	15	13	21	16	14.5	20.5	0.2493

〈표 5〉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유의수준 5%에서 검정 결과 무용사고력, 미적표현 모두 유의확률이 0.05보다 크게 나타났으며, 각 세부항목에서도 유의확률이 0.05보다 크게 나타나 실험군과 대조군이 동일한 집단임을 알 수 있었다.

2) 실험군의 무용창의성 척도 사전·사후 검사 결과

실험군을 상대로 사전검사와 사후검사 결과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윌콕슨 부호순위검정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 실험군의 무용창의성 척도 사전·사후 검사 결과

	평균	편차	중위수	부호순위	검정통계량	p
상상력	1.4545	0.9342	2	0.0039	22.5	0.0039
주관	1.7273	0.9045	2	0.002	27.5	0.002
논리력	2.4545	0.8202	2	0.001	33	0.001
미적감각	2.4545	1.21281	3	0.001	33	0.001
감정	2.2727	1.1037	2	0.002	27.5	0.002
몰입	2.1818	1.3280	2	0.003	31.5	0.003
표현	2.2727	1.2721	2	0.001	33	0.001
통일	2.8182	0.6030	3	0.001	33	0.001
변화	2.9091	0.5393	3	0.001	33	0.001
흐름	2.8182	0.9816	2	0.001	33	0.001
무용사고력	5.6364	2.2482	6	0.001	33	0.001
미적표현	17.7273	4.8392	18	0.001	33	0.001
심미적감각	9.1818	4.1909	10	0.001	33	0.001
작품구성능력	8.5455	1.8091	8	0.001	33	0.001
전체점수	23.3636	6.8010	24	0.001	33	0.001

유의수준 5%에서 검정 결과 무용사고력, 미적표현 및 각 세부항목의 유의확률이 0.005보다 작아서 두 검사 결과의 차이가 유의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실험군의 창의성 점수가 수업 후에 향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대조군의 무용창의성 척도 사전·사후 검사 결과

대조군을 상대로 사전검사와 사후검사 결과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윌콕슨 부호순위검정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7>와 같다.

표 7. 대조군의 무용창의성 척도 사전·사후 검사 결과

	평균	편차	중위수	부호순위	검정통계량	p
상상력	0.875	0.3536	1	0.0156	14	0.0156
주관	0.5	0.5345	0.5	0.125	5	0.125
논리력	0.75	0.7071	1	0.0625	7.5	0.0625
미적감각	0.5	0.5345	0.5	0.125	5	0.125
감정	1.125	0.9910	1.5	0.0625	7.5	0.0625
몰입	1	0.7559	1	0.0313	10.5	0.0313
표현	0.875	0.8345	1	0.0625	7.5	0.0625
통일	0.875	0.8345	1	0.0625	7.5	0.0625
변화	1	0.7559	1	0.0313	10.5	0.0313
흐름	0.75	0.4629	1	0.0313	10.5	0.0313
무용사고력	2.125	0.8345	2	0.0078	18	0.0078
미적표현	6.125	2.1000	6.5	0.0078	18	0.0078
심미적감각	3.5	1.9273	3.5	0.0078	18	0.0078
작품구성능력	2.625	1.4079	2.5	0.0156	14	0.0156
전체점수	8.25	2.2519	9	0.0078	18	0.0078

유의수준 5%에서 검정 결과 주관, 논리력, 미적감각, 감정, 표현, 통일의 평가요소에서 유의확률이 0.05 이상으로 전·후 변화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으나, 각 평가요소를 합산한 무용사고력, 미적표현 등 평가변인의 유의확률이 0.05보다 작아 대조군의 창의성 점수가 수업 후에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4) 두 집단 간의 무용창의성 향상도 차이 비교

실험군과 대조군의 향상도 차이를 검정하기 위하여 윌콕슨 부호순위검정을 시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8. 두 집단 간 무용창의성 변화량의 차이

	실험군			대조군			
	MD	Q1	Q3	MD	Q1	Q3	p
상상력	2	1	2	1	1	1	0.0331
주관	2	1	2	0.5	0	1	0.0042
논리력	2	2	3	1	0	1	0.0004
미적감각	3	1	3	0.5	0	1	0.0005
감정	2	2	3	1.5	0	2	0.0167
몰입	2	2	3	1	0.5	1.5	0.0093
표현	2	1	4	1	0	1.5	0.0136
통일	3	2	3	1	0	1.5	0.0001
변화	3	3	3	1	0.5	1.5	<.0001
흐름	2	2	4	1	0.5	1	<.0001
무용사고력	6	4	8	2	1.5	3	0.0011
미적표현	18	15	23	6.5	4.5	8	<.0001
심미적감각	10	7	13	3.5	2	5	0.0017
무용작품구성능력	8	7	10	2.5	2	4	<.0001
전체점수	24	17	31	9	7	9.5	<.0001

유의수준 5%에서 검정 결과 모든 문항의 유의확률이 0.005보다 작아서 두 군의 차이가 유의함을 알 수 있으며, 이에 실험군의 무용창의성 점수가 대조군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향상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상을 종합하면, 무용전공자들의 창의성 향상을 위하여 무용학적 글쓰기를 도입하여 그 결과를 실험적으로 확인한 결과 무용학적 글쓰기를 시행한 실험군에서는 평가변인과 그 하부요인인 평가요소 전 항목에서 유의한 향상이 관찰되었다. 무용학적 글쓰기 과정 없이 발레수업을 시행한 대조군에서는 무용사고력 항목 중 상상력 요소, 심미적 감각 중 몰입 요소, 무용작품구성능력 중 변화, 흐름요소에서 향상이 나타났으나, 각 요소를 더한 평가변인 항목인 무용사고력, 미적표현에서 모두 유의한 향상이 관찰되었다. 이는 첫째로 무용전공자의 학과수업이라는 연구과정의 특성상 글쓰기 외 창의성에 대한 교육을 완전히 배제하기가 불가능하므로 수업내용이 외부요인으로 작용했을 수 있으며, 둘째로 사전검사 시 미숙한 동작으로 인해 제약을 받았던 안무가 수업의 진행에 따라 기술적인 측면이 향상되어 사후검사에서는 더 자유롭게 표현 가능하다는 점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요인으로 인하여 대조군에서도 창의성 검사척도 상 향상이 관찰된 것으로 보이나, 실험군의 향상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관찰되어 무용학적 글쓰기가 창의성의 향상에 효과적인 것으로 사료된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사전·사후 향상도의 차이는 유의수준 0.05에서 무용사고력, 심미적감각, 무용작품구성능력 전 평가변인에서 유의하게 관찰되었으며, 이를 합산한 총점에서 $p < .0001$ 로 매우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2. 무용창의성의 질적연구

다음은 연구자의 발레수업에 참여한 무용전공자들의 무용학적 글쓰기 결과물을 근간으로 도출된 연구결과이다. 수집된 자료에 근거하여 공통적으로 반복된 주제어와 논제에 관련한 범주들을 다음과 같이 구성할 수 있었다.

1) 동작에 대한 비판적 사고

창작은 독창성과 비판적 사고의 탐색을 요하는 과정이다. 연구참여자가 AAA는 심층면담에서 본인이 작품을 구상함에 있어 무용학적 글쓰기가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지 다음과 같이 토로하였다.

동작에 대한 응용동작들을 처음에는 머리로만 생각하고 몸을 움직이고 있었는데, 글쓰기를 시작하니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생각을 정리한 후 몸으로 움직이니 동작도 더 창의적이게 나오는 부분이 많았다. 배운 동작들을 나열해 글로 써보고 내 느낌에 맞도록 변형시켜보니 생각만으로 할 때와는 다르게 정리가 잘 되었다. 글로 동작들을 나열해보니 더 많은, 다른 동작들을 생각할 수 있어서 좋았다(AAA).

상기의 내용에서 연구참여자가 글을 쓰는 과정을 통하여 비판적인 사고로 동작의 의미를 재발견하고 동작과 작품의 구상에 대한 새로운 안목을 기를 수 있게 되었다는 효과를 찾아볼 수 있으며 이는 반성적 글쓰기가 학생들의 지각능력을 향상시키며 좋은 아이디어 발상에 효과적인 교육적 도구로 볼 수 있다(최의창 역, 2009:146)는 주장과 일맥상통하고 있다.

발레 작품을 창작해 본 것이 처음인데, 처음에는 정말 막막해서 익숙한 동작 위주로 썼었는데 글로 나열해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되니까 더 많은 다른 동작을 생각할 수 있어서 좋았다. 창의력에 많은 도움을 주는 것 같고 나는 어떤 스타일을 추구하는지도 조금 깨달은 것 같다(BBB).

여기서 주목할 점은 연구참여자가 BBB에게 무용학적 글쓰기는 무용수로서 지향하는 자신만의 춤을 자각할 수 있도록 촉매적인 역할을 하였다는 것이다. 자신의 내면을 외부로 표출하는 데 있어 본인의 감정에 충실하여 자연스럽게 움직임으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이를 문장으로 적어보고 반복적으로 사유함으로써 본인의 내면에 한걸음 더 다가가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나타내기 위하여 어떠한 동작을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고민하는 과정에서 본인만의 움직임을 구성하는 데 무용학적 글쓰기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수업이 끝나면 힘들어서 빨리 나갈 생각만 했는데, 글쓰기를 하면서 친구 내용을 보면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내용을 참고하기도 하고 나가면서도 대화 주제가 수업내용으로 이어져 복습하는 느낌도 들었다. 다음 수업시간에는 친구 동작을 조금 더 눈여겨보고 동작을 관찰하게 되었다(CCC).

글을 쓰는 과정 중, 그리고 쓰고 난 후 동료들 간 수업 내용에 관한 토의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면서 스스로 잘못 알고 있었던 내용을 확인하고 검토하는 모습을 연구참여자 CCC의 면담 중 발견할 수 있었다. 서로 다른 시각과 생각을 비판하고 협의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새로운 안목을 형성하고 아이디어를 자기화 시키는 과정이 무용전공자로서 갖추어야 할 안무가적인 면모를 함양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다고 여겨진다.

2) 동작의 반성적 성찰 도모

무용학적 글쓰기가 매시간 자기반성과 성찰의 기회를 제공해 창작과정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부족한 부분을 살피고 보완하는 수단적 역할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찾아볼 수 있다. 연구참여자 DDD와 EEE의 기술에서는 “발레수업에서 병행된 무용학적 글쓰기 과정은 정말 낯설고 막막한 마음으로 시작하였으나 반성적 시간을 마련한 토대가 된 것이 결국에는 창작과정을 수월하게 만들어 주었다”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이번 창작을 짤 때에도 내가 지난 주에는 무슨 글을 썼지? 라는 생각과 함께 나를 반성하고 되돌아본 기억을 떠올리게 되면서 이번 창작은 중간고사 때보다 작품을 짜는 것이 쉬워졌다고 생각했다. 수업 초반에는 글쓰기가 낯설기도 하고 귀찮은 작업이었는데 점점 창작 과정에 효과적임을 이번 수업을 통해 알게 되었다(DDD). 글쓰기를 한 학기 동안 하고 창작을 하니깐 중간고사 때보다 더 자세하고 수월하게 임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중간고사 때는 정말 막막한 마음으로 동작을 짰었는데 기말고사 때는 발레를 하고 글쓰기를 진행하니깐 기억에 많이 남고 되돌아보게 되면서 생각한 발레 동작을 쉽게 짤 수 있었다. 앞으로 현대나 한국무용도 글쓰기를 조금씩 하면 도움이 정말 많이 될 것 같다(EEE).

이처럼 발레수업에서 실시한 무용학적 글쓰기를 과제로 생각하여 일회성으로 끝낸 것이 아니라 10회 동안 꾸준히 시행한 점이 연구참여자들 사이에서 생각한 동작에 관하여 지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유도해 무용창의성을 신장시킬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찾아볼 수 있었다. 자신이 추구하는 움직임의 사유한 활동과 동료들의 안무동작을 관찰하면서 진행한 점도 연구참여자들만의 무용세계를 구축하는 데 일조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무대에 올라가기 직전까지 반복적으로 되풀이되는 반성 후 수정작업은 무용전공자로서 부

끄러운 일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여기서 일어나는 반복된 시행착오의 경험과 창작과정이 충분한 자양분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발견되었다.

3) 무용창의성 개발의 도구적 역할

연구참여자 AAA는 심층면담에서 “학업과 창작공연 준비를 병행하는 이번 학기에 많은 부담감을 가지고 수강했는데 발레수업에서 실시된 무용학적 글쓰기가 오히려 창작 공연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고 하여 무용학적 글쓰기 작업이 수업시간에 과제를 하나 더 하는 부담이 아닌 학업성취를 쉽게 하는 도구의 역할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발레수업 시간의 창작 뿐 아니라 부전공으로 하는 공연에도 글쓰기를 하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되어서 요즘 공연 작품 창작할 때에도 먼저 글로 써보고 실행하고 있다(AAA). 음악을 듣고 글쓰기를 하면서 새로운 발상을 하고 동작의 느낌과 주제를 찾으며 작품을 탄생시키는 기쁨을 느낀 것 같다. 그리고 배운 내용을 다시 돌이키며 생각하게 되었으며, 멋진 작품을 만들어 내는 무용수가 되어야겠다는 바람을 가지게 되었다(GGG).

상기의 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무용학적 글쓰기는 동작을 구성하기 전부터 안무의 압박감을 받는 무용전공자들의 마음을 글로 풀어쓰도록 독려하며 사고의 여유를 제공하여 자신을 독립적으로 들여다보고 마음을 읽고 비판적으로 사유하는 과정이 되고 있었다. 또한 자신의 무용을 체계화시키는 데 입각한 움직임의 사고를 경험하게 되면서 본인의 작품에서 등장한 핵심적인 동작을 가지런히 배열하도록 도모하였다. 이에 무용학적 글쓰기를 실시하지 않은 집단보다 실시한 집단이 보다 독특한 움직임을 완성도 높게 생산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연구참여자 AAA와 GGG는 면담내용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무용학적 글쓰기가 본인의 소질을 계발하고 응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연구참여자 HHH의 기술내용에서는 “수업을 마치고 글쓰기를 하면서 피곤하고 하기 싫다는 생각 때문에 빠지려 했던 제 자신이 한심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앞으로는 이를 이겨내고 열심히 해야겠다고 다짐했다.”고 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이 기술한 내용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용학적 글쓰기가 창작의 기쁨과 희열감을 경험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였으며 무용전공자로서의 소신과 창작의 가치 및 생각의 동기를 부여한다는 점이며, 이는 스포츠의 즐거움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운동하는 사람들의 현장체험의 바탕으로 한 글쓰기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이학준, 2003:54)고 주장한 내용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상기의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단편적이고 일상적인 단문, 댓글에 익숙한 현대인에게 본격적인 글쓰기, 특히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고 이를 동작으로 표현하는 무용에 적용하는 무용학적 글쓰기는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주제가 될 수 있으나, 적절한 환경에서 이를 통하여 자신의 발전을 경험할 때 글쓰기는 쉽게 꺼내 쓸 수 있는 도구와 같은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IV. 결론 및 제언

과거 인간의 창의성은 소수의 특별한 사람만이 소유할 수 있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으며, 고대 그리스인들은 신들이 부여하는 영감에 의해 인간은 새로운 것을 창출해 낸다는 신 중심적인 창의성의 개념을 주장하였다.

인류가 발전하면서 신 중심적인 창의성의 개념은 인간 중심적인 창의성의 개념으로 변화되었으며, 19세기에 들어서면서 창의성은 인간의 잠재능력으로서 과학적으로 탐구 가능하고 교육을 통해 향상 가능한 능력으로 여겨지게 되었다(박영하, 2010:120). 창의성을 ‘새롭고 가치 있는 것,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는 능력인 창조능력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특성, 즉 창의적 성격과 태도’(김재은, 2007:19)로 정의할 때, 무용 창의성은 ‘새로운 무용이미지를 만들고 가치를 부여하는 능력과 태도’로 정의해 볼 수 있다. 무용작품은 안무가의 사고를 통해서 나온 창의적인 생산물의 형태로 관객에게 보여지며(안문경, 김경은, 2007:76),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예술체험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자기관리를 통해 움직임감각을 개발하고 상상적 사고를 통해 창의적으로 무용수행에 하는 창의적인 무용수, 그리고 다양한 예술체험을 통해 무용감각과 사고능력을 키우며 움직임감각을 기초로 상상적 사고를 하면서 심미적 감각을 기준으로 무용작품구성능력을 통해 창의적인 산출물을 만들어 내는 창의적인 안무가(오례지나, 2006:65)가 필요할 것이며, 이때 필요한 창의성은 교육을 통해 개발될 수 있을 것이다(박영하, 2005:123 재인용).

이러한 창의성 계발을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이 시도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일반교양을 비롯한 음악, 체육 등 여러 분야에서 글쓰기를 도입, 그 효과가 검증되고 있으며 무용분야에서도 그러한 시도가 있어 왔다. 박미영(2010), 유정재, 이정화(2008), 전현주, 오을자(2012) 등은 무용교육 과정과 교수모형

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그 대안책을 모색하고 있으며 김두련(1997), 주현경(2007) 등은 무용과 창의성을 주제로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이러한 연구들은 아동과 초등학생을 기준으로 한 프로그램 개발에 연구의 초점을 두었기에 대학생을 비롯한 성인을 대상으로 실전적으로 연구된 자료는 미비한 실정이다. 또한 ‘창의적 글쓰기’에 관련된 연구는 대체로 교수법과 연결되어 현장교육 과정에서 진행된 사례를 중심으로 수업모형을 제시하고 그 유의미성을 밝히려는 연구들이 대부분이며 무용분야에서는 아직 초기단계와 같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고는 무용전공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창의성 관련 연구인 점과 인문학적 접근방식으로서의 한 방편인 무용학적 글쓰기를 실제로 진행하였다는 점에서 지금까지 발표된 연구와 차별성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이상으로 무용학적 글쓰기를 활용한 발레수업이 무용전공자의 무용창의성에 미치는 효과를 양적·질적 연구를 통하여 알아보았으며, 이에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양적 연구로 S대학교 무용전공자 19명을 무용학적 글쓰기를 수행한 실험군 11명, 수행하지 않은 대조군 8명으로 나누어 주 1회, 15주 동안 발레수업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사전·사후 검사를 시행하여 이를 무용창의성 평가척도를 적용,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다. 자료처리는 일측성 부호순위검정을 이용하였으며, 유의수준은 $\alpha = .05$ 로 설정하였다. 실험군, 대조군 두 집단 모두에서 무용사고력, 심미적 감각, 무용작품구성능력 등 창의성 평가변인이 향상되었으나, 그 증가의 폭은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컸으며 ($p < .0001$), 이를 통하여 무용학적 글쓰기가 무용전공자의 창의성을 향상시키는 데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질적연구로는 실험군을 연구참여자로 설정하여 이를 대상으로 삼각측정기법을 진행하였으며,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 수집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첫째, 무용학적 글쓰기는 무용에 대한 반성 및 고찰의 시간을 제공해 연구참여자들의 상상력을 도모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무용전공자들이 비록 학생 안무가의 입장에서 시도된 작업이었지만 자기 탐색적인 사고의 확장을 가져와 창의적인 안무구상에 효율적인 수단이 되었음을 알려주고 있었다.
- 둘째, 무용학적 글쓰기는 연구참여자 본인들이 선호하는 춤의 스타일이 무엇인지 재발견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창작과정에서 반복되는 수정작업을 도모하는 가교역할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무용분야

에서 교육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창작은 독창성이 우선시되는데 무용학적 글쓰기가 창작의 동기부여 및 자발성을 고취시키는 데 일조하여 무용창의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한 방법이 되었음을 입증하고 있다.

셋째, 연구참여자들에게 무용학적 글쓰기는 사유의 과정이 되어 창의적인 움직임과 몸동작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여 무용전공자로서 갖추어야 할 작품구상능력에 순기능적 역할을 수반하고 있다. 보다 나은 움직임과 표현의 가치 창출을 도모하는 것으로 관찰할 수 있었다. 또한 연구참여자들이 무용학적 글쓰기의 효과를 자각하고 본인 스스로 타 교과 및 생활에 적용하는 모습을 볼 때 실제 수업에 무리 없이 지속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전공 실기수업이라는 환경적 제약으로 인하여 동작교육에 의한 효과에 연구가 집중되었으며, 또한 자발적 참여자를 대상으로 비모수적 기법을 이용하여 실험을 진행된 제한점이 있다. 향후 동작수행 외 창의적인 요소가 드러나는 다면적 실험과 함께 더 큰 집단을 대상으로 분석 결과를 뒷받침한다면 무용분야 글쓰기 관련 실험연구의 입지를 보다 확고히 다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글쓰기와 같은 다양한 교수방법의 도입이 개인의 잠재력과 자유, 창의성의 범위를 극대화하려는 무용교육의 목적에 한발 더 다가가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문헌

- 김기화(2011), "창의적 무용교육과 문제중심학습", 한국무용연구회, **한국무용연구**, 29(2), 29-50.
- 강성숙(2014), "예체능 계열 학생을 위한 글쓰기 교육", 온지학회, **온지논총**, 41, 335-368.
- 김두련(1997), "아동의 창의성 향상을 위한 창작무용 프로그램 개발과 현장적용에 관한 연구",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영지대학교 대학원.
- 김재은(2007), **창의성과 무용교육**, 서울: 한학문화.
- _____, 서예원(2011), "무용교육의 인문학적 과제", 한국무용교육학회, **한국무용교육학회지**, 22(1), 1-16.
- 김주연(2014), "인문학적 실천을 모색하는 대학 글쓰기 교육 방안 연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18(3), 115-134.
- 김현정(2012) "교양교육으로서의 글쓰기 교과의 본질과 방향", 한국교양교육학회, **교양교육연구**, 6(2), 79-103.

- 박미영(2010), "무용에서 철학적 글쓰기의 즐거움", 한국체육학회, 움직임의 철학 : **한국체육학회지**, 18(4), 233-246.
- 박영하(2010), "교육학적 관점에 따른 창의성 개념 분석", 대한무용학회, **대한무용학회논문집**, 64, 119-133.
- 안문경, 김경은(2007), "무용 안무의 창의성에 대한 질적 탐색", 한국무용과학회, **한국무용과학회지**, 14, 75-83.
- 오레지나(2006), "무용창의성의 본질에 대한 이론적 · 경험적 탐색",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_____(2012), "무용 창의성 검사개발", 한국무용교육학회, **한국무용교육학회지**, 23(1), 155-170.
- 유정재, 이정화(2008), "무용수업에서 글쓰기 과제 경험의 교육적 의미", 한국무용학회, **한국무용학회지**, 8(2), 1-9.
- 이원숙(2013), "인식의 확장을 유도하는 예술계열 글쓰기", 대학작문학회, **대학작문학회지**, 6, 185-211.
- 이학준(2003), **인간의 얼굴을 한 스포츠**, 서울 : 북스힐.
- 이혜민, 신현군, 김윤희(2013), "노인 무용참여를 통한 성공적인 노화경험", 한국스포츠학회, **한국스포츠학회지**, 11(3), 121-133.
- 전현주, 오을자(2012), "무용비평 교육의 새로운 지평", 한국체육학회, **한국체육학회지**, 51(4), 361-369.
- 주현경(2007), "창작무용활동 중심 초등학교 리더십 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 최상민(2015), "대학생 글쓰기수업에서 학습자의 창의성을 이끌어 내기 위한 비계설정 전략", 대학작문학회, **대학작문**, 11, 235-260.
- Laban, R.(1963), *Modern Educational Dance*, 2nd edition revised by L. Ullmann. London, England: MacDonald and Evans.
- Larry L.(1996), *Dancers Talking Dance*, 최의창(역, 2009), **반성적 무용수업**, 서울 : 대한미디어.
- Torrence, E. P.(2005), **토랜스의 창의성과 교육**, 이종연(역, 2005), 서울 : 학지사.